



에이코일

그녀는 그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탕에 천연 물감을 바른다든지, 물이 그 작업을 마친 후 그 위에 자갈만 붙여도나 이러려. 물기서물 마취를 심하게 해서 사실적으로 그려 넣는다. 이는 자연의 놀라운 힘, 필감 생명의 진실을 대한 구체적인 현시이다. 또한 오랫동안 자연에서 길러온 사색의 결과물이자 그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제작에 대한 진솔이다.

신항섭 · 미술비평

## 서해영展 慕

갤러리 소소 5.14~6.13

과학자가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의 물질을 찾듯이 미술가가 세계의 근원적 구조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한 때 사구의 모호나스름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니 가능성이자기보다는 당위성이 강해지는지도 모른다. 때로 그 당위성은 강박적이어서 장르의 영역을 축소시키기도 했고 결박들을 생산하기도 했다. 아치는 다르게 개인적 방식의 구조주의적 태도를 일컫는 일반적언 의미의 회화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그것들은 차려낸 장르를 사이에 서 있다는 편이 낫다.

서해영의 작품을 이루는 이미지들은 화려하다. 그리고 진지 제목이 그렇듯이 막대한 결한다. 그 결집은 작가가 무엇을 기억하거나 기록했는지보다는 낯설게 화가게 바쳐진다. 서해영의 작업이 낯설게 하는 세계는 일상적이고 그 일상성은 어느 곳에서

재현적 형상들은 일종의 돌아번복이 된다. 형식으로서 돌아번복은 작가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이해지고 만다. 언어함을 피하기 위해서 작가는 자신이 제작하는 형상들이 돌아번복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식은 일종의 소극 효과를 낳는다. 즉 자신이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의도된 재현성은 관객의 몰입을 거부한다. 시선은 작품에 무뎠게 반사되고, 오히려 작품이 관객을 응시하게 된다. 아마도 서해영의 작업을 볼 때 알아내는 이상한 재현의 역설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김홍구 · 사진작가

## 김선두展 너에게로 U턴하다

리서갤러리 5.20~6.12

아주 오래된 미세 현수에서 세계 형식의 완인을 짓는 철학자가 있었다. 너무 사소하여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와 기울어짐을 '클라나옴(Clasmom)' 이다. 별명만 푸르레타투스(Laetotia, BC 99?~55?)다. 그는 거대한 세계의 시작을 평행으로 이공을 가르던 원자들의 충돌에서 찾았다. 직선 운동을 하던 원자들의 레도 이탈과 충돌은 바로 이 사소한 변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발생은 원자와 원자의 만남이라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번 냇물, 먼 땅, 성소한 이문자가 거대한 우주 탄생 비밀의 단서로 삼은 실재와 실재의 만남이라는 사건은 김선두 작업의 건초틀 속이다. 1980년대 처음 걸린 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러 김선두는 그의 장기 기법에 천착해왔다. 그동안 그의 작업 주제는 도회적 삶과 시계에서 고향 남도의 풍경을 거쳐 다시 도시의 삶으로 일련의 변화와 모이었고, 다양한 방식과 형식으로 작업을 인정받아 왔다. 그 세월이 삼십 년이다.

김선두 작업에서 장치는 평행운동을 하던 원자들에서 충돌의 중을 내어온 공간에 다를 아니다. 본격적인 사건, 본격적인 행위는 이 위에서 발생한다. 사건의 장으로서 광자의 선택이 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 있다. 놀이와 연극, 세걸과 길이가 다양한 순회로 형성된 바탕은 그의 작업에 클라나옴으로 작용한다. 균일하지 않은 유동적인 바탕 위에서 액과 화의 걸과 컵은 정해진 경로의 이탈, 뜻밖의 상황, 우연한 결집의 발현을 위한 계기이다.

심한 질서와 리듬을 가진 요소들과의 충돌은 양자적 가치 사이의 혼란을 제공한다. 연속과 단절, 연결과 분리, 현재와 과거, 회복과 전복 사이를 오가는 혼돈이다.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상황에서 각각의 요소는 핵심적 순응이나 자발적 고립이 아닌 재제되어 나간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재제이다.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이런 과정을 수행해나갈 때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발효와 숙성을 위한 시간의 중요성에 그가 주목하는 이유

나 목격되는 지나치게 친숙한 것들이다. 도로, 식물, 건물, 광장 따위의 지나친 친숙함을 세계를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경멸하게 한다.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예술품은 친숙함을 깨뜨리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해영은 그 깨뜨림을 위한 전술을 역시 일상적이고 광범한 차원에서 구사한다. 이미지를 이루는 각각의 장면은 통째리일 구성되고 시뮬레이션은 특별히 기이하지 않으며 묘사는 상징적일 정도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세계, 그래서 건성으로 보는 세계를 다시 한번 범상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럼으로써 세계가 평범하게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낯선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서해영이 세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레이어, 즉 이미지의 층, 혹은 막들이다. 그것들이 겹침으로써 평범함은 답답함에 이른다. 그 답답함은 자제가 들어다보면 수많은 구조로 짜여 있다.

서해영의 작업은 다층적이다. 겹보기 구조도 그렇고 의미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서해영이 보여주는 세계의 카르카스 답답함이다. 그것은 일종의 공포이기도 하다. 물론 작가가 반드시 그것을 의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세계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폐소감이 거기에는 있다.

모든 종류의 시각 이미지는 세계를 매개한다. 매개된 이미지들은 세계와 작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말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개되기 이전의 그 대상들에 관해 묻는다. 그 물음의 방식으로서 낯설게 화하는 세계를 낯선 이미지로 지환한다. 그때